



## 고객의 쉼터, 편안함을 제공하는 '레비도르' 갈색과 와인빛깔의 조화로 고급 이미지 연출

한잔의 커피 찻잔 세트. 사기로 만든 주전자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리필해서 먹을 수 있게 했다.

계획 도시 분당 시내 한가운데 레비도르 판테온점(대표:김창명)이 지난 10월 들어섰다. 주택가 단지에 위치한 본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분당'의 제과점을 대표하는 점포로서 명성을 쌓기 위해 본점에 이어 점포를 개설한 것. Pantheon Regency(판테온 리젠시) 빌딩 1층에 입주한 이 점포는 오가는 이의 눈에 쉽게 띄는 길목에 위치했다.

깨끗한 신도시, 분당에 어울리는 투명한 유리벽과 갈색 간판 위로 금색의 'Pâtisserie Lepid'or Boulangerie' 라는 상호가 잘 어울린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선 이 점포는 입주 지역의 특성상 구매 고객 대부분이 빌딩 입주자로, 주택 단지와는 차별화한 제품 개발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생활, 분당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보여주는 모

습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구매 고객의 객단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 10,000원에서 50,000원대에 이르는 고객의 소비 수준은 향후 점포가 끌어안아야 할 단골 고객의 소비 패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주변 건물도 1년 후 입주 예정인 곳이 많아, 꾸준한 매출 신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장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특이한 빵과 소스로 맛을 낸 제품들이 구비돼 있고, 느끼하지 않은 조리빵류와 다양한 모양과 맛을 갖춘 쿠키 세트도 진열돼 있다. 총 30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군을 구비한 이곳에서는 '생크림 조각 케이크', '샌드위치', '무스 조각 케이크' 등이 인기가 높다. 샌드위치의 경우 따로 샌드위치용 빵을 만들 정도로 점포가 애정을 갖고 신경쓰는 부분이다.



1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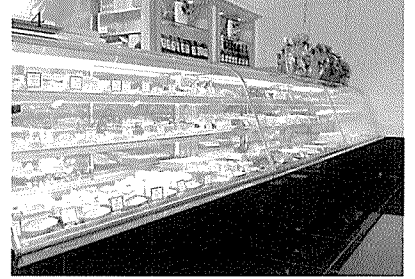


③ 바구니안에 담은 날개들이 쿠키들. 독특한 모양의 까칠한 갈색 바구니가 쿠키와 묘한 조화를 이룬다.

④ 쇼케이스 안에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류를 구비했다. 이곳에서는 롤케이크보다 조각케이크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3



5

- ① 매장 전면에 갈색 의자와 테이블을 놓아, 따뜻한 날 야외에서 제품을 시식.
- ⑤ 노란 할로겐 조명에 제품의 색이 더욱 깊어 보인다. 갈색의 차분한 분위기가 매장 인테리어의 초점.
- ② ⑥ '소비 수준이 높을수록 쿠키를 찾는 고객이 많다' 라고 사장이 말한다.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쿠키 세트 제품을 강화할 예정이다.
- ⑦ 벽을 중심으로 매장 왼편에 테이블을, 오른편에 진열장과 매대를 구비했다. 벽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 따로 입점한 듯한 착각이 든다.

이곳이 다른 점포와 차별성을 지닌 점은, 치즈 진열대나 홍차 잎 상품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치즈 진열대 위로는 프리코 에담 치즈, 고다 치즈, 스모크 치즈 등 전문 치즈숍에서 취급하는 고급 제품들을 진열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학생이나 서구화된 입맛을 지닌 고객들이 주로 치즈 제품들을 선호한다. 또한 향이 깊고, 맛이 깔끔한 홍차 잎을 종류별로 스테인레스 보관함에 조금씩 넣어 판매하고 있다. 진열 상품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라는 인지도를 고객에게 쌓기 위해서이다. 실제, 다양한 커피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커피전문점을 경영한 안주인의 노하우를 접목해 고객이 원하는 맛을 창조하고 있다.

45평 크기의 매장은 커피를 마시는 곳과, 제품을 진열한 매대를 외벽으로 분리시켜 독립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곳이 지향하는 매장 인테리어 색인 갈색과 자주색이 어울려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객의 쉼터이자,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레베도르가 분당 지역에 자리잡는 것이 점주의 계획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캐치해 향후 분당의 명소로 자리잡겠다는 레베도르는 샌드위치 품목을 강화하고, 무스 케이크와 선물용 쿠키 세트도 포장에 신경을 써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레베도르 분점 시설에 '투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점주의 말이 곧 이뤄질 것 같다.

<취재·임희정/ 사진·박경배>